

지역 소식통

둘레, 2024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주최하고 지역 문화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시)둘레가 주관하는 2024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주간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에서 다양한 문화 향유 및 활동의 기회를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자치도 내 문화 취약 지역 10개 시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펼쳐지고 있다.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술, 골목숏' 문화를 나누다 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오후 7시에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시)둘레 주관으로 열렸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식품알레르기 홍보

정읍시는 2024 세계 알레르기 주간(6월 23~29)을 맞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세계 알레르기 기구(World Allergy Organization WAO)는 세계 111개 지역 및 국가 알레르기 기구와 임상면역학회로 구성된 국제연합으로, 해마다 세계 알레르기 주간을 정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질환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알레르기질환에는 식품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나필락시스 등이 있다. 이중 천식 알레르기질환은 올해 '식품알레르기 제대로 알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식품알레르기 진단 및 예방·관리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정보센터의 정보를 제공받아 시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의 한 종류인 '아토피 예방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 질환의 예방교육과 상담·환경·식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도시가스 공급 3개년 사업 청신호

정읍시, 대폭적 예산투입과 공사방법 변경으로 미공급 불만 해결 기대

정읍시가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져 불만이 많았던 도심지 단독주택 8개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장한다. 기존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1년에 1.5km씩 15년이 걸리는 규모이지만, 시는 공사구간을 대폭 연장하고, 공사 방법을 변경해 3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방식은 공급 배관과 인입 배관을 먼저 시공하고 총 공사비용을 신청 주민 세대 수로 나눠 청구했고, 그 중 일부를 시 보조금으로 최대 200만원 지원했다. 이 때문에 세대수 또는 인입관 길이에 따라서 주민 부담 비용이 차이가 나고 많은 부담이 됐다.

새로운 공사방식에 따른 주민부담금은 인입배관(5m 기준) 190만원과 내관 공사비용 300만원(보일러, 배관 등)을 합쳐 총 490만원이다.

공사 방법 변경으로 기존방식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배관 공사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사업 신청 지역인 수성동 마곡지구는 49세대 1.4km 구간에 총 사업비 약 7억원이 투입된다.

기존방식에 따라 공사하면 시 지원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번 1500만원이지만, 공사방법 변경으로 49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 이번 3개년 공사는 공급배관 연장길이 23km로 확대해 공급배관 먼저 시공하고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신청 시 공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인입 배관 공사비용을 주민과 도시가스사가 각각 50% 부담하게 된다.

시는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수성·장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급배관 매설지역에 지장물과 사유지로 인해 공사 불가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인 부담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변경된 공사 방법으로 올해부터 3년 동안 121억원(도비28억, 시비93억, 전북에너지서비스28억)을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23km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 1348세

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82%를 달성하게 된다.

올해 공사구간은 정명동 2·3·7동, 수성동 구미마을과 10·37동 지역 8km로, 사업비 39억(도비9억, 시비20억, 전북에너지서비스 9억)을 확보했다.

2025년에는 사업비 44억 들어 상동 11동과 장명동·시기동 일대, 연지동 2·3동 하모동 일원, 2026년은 36억을 들여 시기동 10·12동 연지 4동, 초산동 6·9동, 금봉동 일원에 공급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3개년 공급 배관 확대로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무엇보다 10년이 넘는 공급 기간 단축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7월 말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심폐소생술 가상현실 체험관' 개관

고창군, 사고별 응급처치 훈련시스템 갖춰서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운영이 잠정 중단됐던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가상현실 체험관으로 재단장하여 재개관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 영상은 모니터를 통해 상시 방영해 교육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마네킹을 활용해 실습을 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가상현실(VR) 체험장비를 통한 실습도 가능하다.

가상현실(VR) 체험장비에는 교통사고, 심장마비, 익사사고와 같은 사고별 응급처치 훈련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실감나는 상황훈련을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체험형 교육

이 가능하다.

특히 이 장비에는 모션인식 정밀센서가 장착되어 세밀한 자세 교정이 가능하며, 절차학습과 자가평가모드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폐소생술 가상현실 체험관은 고창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1층에 위치해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일·공휴일 휴관) 운영된다.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단체 접수 및 기타 문의는 유선(063-560-8736)으로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박성민 국회의원 감사패 전달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지난 28일 박성민 국회의원을 만나 방사능방재 예산 확보 등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를 부탁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가 박성민 국회의원을 만나 방사능방재 예산 확보 등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를 부탁했다.

이날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참가한 가운데, 그간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지방재정법 개정에 기여한 박성민 국회의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소재지를 제외한 방사능비상계획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전북 부안군·고창군, 대정 유성구,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정이다. /부안=김영진 기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도의 시·군·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에 속한 부안군 등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5개 지자체에 별도의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에서는 박성민 국회의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개정 미적용 5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했다. /부안=김영진 기자

부안군,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 현장행정 추진

7월 5일~8월 18일까지 운영

부안군은 개장을 앞둔 관내 해수욕장을 찾아 준비 26~27일 해수욕장 상황을 점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27일)와 최영두 부군수(26일)는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과 안전(구조)장비 등을 점검하고 개장 준비를 살펴보고 있다.

부안군 관내 5개소 해수욕장(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은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운영하며,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고 폐장후에도 해수욕장 이용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9월 2일까지 안전관리와 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개방하여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103명을 선발·채용해 주간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취약한 야간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4,000여명 넘는 안전시설 장비를 해수욕장 여건 및 규모, 이용수요 등을 감안해 해수욕장별로 적정 배치하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27일)와 최영두 부군수(26일)는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시범적으로 변산해수욕장이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오후 6시~8시) 야간개장함에 따라 야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야간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관리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폭염 속에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강풍 등의 대비를 위해서도 시설물 관리 등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해수욕장에서 즐

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부안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이 좋은 추억거리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영진 기자

고창군,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12.5% 인상

고창군이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12.5% 인상을 한다. 대신,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서민물가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을 현재까지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각종 상수도 시설투자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선 현저히 낮은 요금 현실화율(33%)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올 2월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 대중탕용을 제외

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상수도사용료를 12.5%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 복지증대를 위해 기초수급대상,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가정(19세미만 2명)까지 상수도사용료 20%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상수도의 경우 월 10톤 사용시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월 20톤 사용시 1만1450원에서 1만 2450원으로 대부분의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월 600~10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정 결산

2022년 7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9대 부안군의회가 전반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제9대 전반기 부안군의회는 지난 2년간 제33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23회에 걸친 22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군민과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왔다.

▲지역현안과 민의를 반영한 제강형 의정활동

제9대 부안군의회는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현안이나 주요 사항에 대한 입법활동 및 정책결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등 213건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집중호우 피해자 부안군 군세 감면 동인안', '부안군 병역군민증 수여 동인안' 등 동의(승인)안 73건,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유해폐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등 건의(결의)안 28건, 예산결산 승인 19건, 기타 65건 등 총 39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군민 뜻 최우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구현

조례안 등 총 398개 안건 처리 지역 현안 정부정책 반영 최선 새만금 예산 삭감에 강력 항의

특히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부안군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부안군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등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지원 조례를 통해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노을대교 4차선 확장 건설 촉구 건의안',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쟁점리



지난 2022년 7월 1일 문을 연 제9대 부안군의회.

과행 이후 새만금 SOC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서는 삭발투쟁 및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했다.

▲견제와 협치를 통한 정책 대안 제시

부안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다.

부안군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대책, 농어민 소득 창출방안, 교육복지정책,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109건의 국정질문과 39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및 정책 공유를 위해 사전 간담회 실시해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바랍직한 정책결정을 지향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2022년 191건, 2023년 147건을 지적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합목적적 통제 역할에 충신했다.

예산 심의시에는 전년도 결산심사와 연계해 관행적·반복적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했다.

부안군 예산 8천억 시대에 재정 운영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군민의 행복 및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했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정중심의 열린의회 구현

현정중심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정중심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위해 노력했으며, 푸드앤드포츠타운 조성사업, 마리나항만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대상지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각종 지역행사와 축제,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각종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했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 하였다. 필요시에는 특정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군의회는 각종 재난 상황 발생시 긴급 간담회 소집, 소외이웃 위로 방문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군의회는 집행부와 상생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골목상권 회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안=김영진 기자